예불 법회 교육 봉사 문화

도시사찰, 다목적 공간 갖춰야

김봉렬교수 '도시사찰건축…'서 주장

국내 도시지역에 건설된 현대 사찰건축의 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건축계획의 내용과 구성요소들을 도시적 입지성·기능성·종교적 상징성의 세측면에서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문화재전문위원인 김봉렬교수(공학박사)가 최근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연구논문으로 제출한 '현대 도시사찰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란 이 논문은 신흥사찰과 포교당들이 점차 도시지역에 진출하면서 봉착하고 있는 건축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 향후 도시사찰 건축의 적절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교수는 "불교 현대화의 지향점은 현실화 대중화 생활화로 요약된다"며, 이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사찰이 증가됨과 동시에 그 건축양식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전통적인 건축구조는 예불위주의 수행공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예불과 법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요구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사찰에는 없었던 대중의 교화와 교육의 장소,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의 제공,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교수는 현대사찰을 필요 기능별로, 예불과 법회의 공간, 수도생활을 위한 승방(僧房)부분, 신도의 교육 홍보 봉사를 위한 공공부분, 운영유지의 관리부분, 기타 부속부분으로 분류한다.

김교수는 현재 건설되는 도시사찰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도시적인 맥락에 어울리지 못하는 복고적 형태와 인습적인 대지 이용, 모호한 기능의 설정과 획일적이고도 진부한 프로그램, 절충적이고 비교리적인 상징과 표현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사찰의 대지는 대부분 외곽지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좁은 대지와 높은 건폐율(대지 넓이에 대한 건평의 백분율)과 3-4층의 높이, 낮은 용적율(건축물에 의한 땅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 획일적인 적층형(積層型)의 공간구성의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사찰규모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상부의 도시성을 확보할 것과, △사찰의 중심공간인 법당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법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예불공간을 부가하여 의례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경 기자〉

◇김봉렬 교수

'사원경제 활성화' 첫 세미나

사회문제硏, 종단재정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영담스님

교계 최초로 '사원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6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가 연구소창립을 기념하여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와 함께, 현 총무원이 표방한 '생산불교'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다.

먼저 '원시불교시대 교단의 생산관'을 발표하는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교단의 증식방법, 보시의 형태, 보시물의 관리·보존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재 불교 교단의 재산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대승불교의 생산관'을 발표하는 곽민연교수(동아대)는 대승의 주요 경전과 논장을 근거로 대승불교가 현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을 중요시 했다고 밝히고 그 중심은 보살도, 특히 동사(同事)와 보시의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사원경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원경제의 운영원리를 제시하면서 사찰과 교회의 재정상태, 특히 수입과 자출의 구조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을 발표하는 영담스님은 종단의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으로 우선 종단 내부 재무구조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의 전환을 역설한다. 또한 경험적 근거와 불교의 종지를 고려하면서 몇가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불교의 역할

조계종 학술세미나

지난 21일 조계사 문화관에서는 조계종 봉축위원회 주최로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봉축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응스님(해인사)과 송희식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과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현응스님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정신과 교리체계를 통해 선·염불·바라밀을 결합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이 한국사회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흩어진 원효자료 묶어 집필

김상현교수 '일서집편' 신라문화지에 발표

원효의 일문(逸文;흩어져서 그 일부만이 전하는 글)은 후대인의 여러 저술에 인용되어 단편적으로 남아오는 것이 적지 않다. 타인의 저술에 인용된 원효의 일서를 전거(典據)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元曉云(원효가 말하길)'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원효금강반야경소云'과 같이 책이름까지 밝힌 경우도 있다.

지난해까지 원효의 일서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글을 모아 〈輯逸승만경원효소〉와 〈輯逸금강명경소〉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김상현교수(한국교원대·사진)가 이번에는 '저서를 밝혀서 인용한' 원효의 일서를 모아 〈원효사일서집편(元曉師逸書輯編)〉을 학술지 〈신라문화〉 제10·11집에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일서 중에는 〈금강반야경소〉등 단 1회의 단편적인 인용으로도 그 저서의 유통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특히 〈金剛經義記〉〈華嚴關脈義〉〈劫義〉 등은 여러 목록에 빠져 있던 원효의 저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나 돼지의 몸을 받는 까닭은

문 다음 생에 새로이 몸을 얻는 윤회의 과정에서 새로 태어날 생명은 업식으로 인해 육신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나 돼지, 인간의 몸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요?

〈최영철·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답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 다 살고 갈 때에 재물은 대문안에 놓아두고 처자식은 동구밖에서 작별을 고할뿐입니다. 따라오는 것은 업식밖에 없는데 이 업식이 본성을 가리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업식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돼지처럼 살았으면 돼지가 될 것이고 독사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독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한치의 에누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우주법계가 다 알고 모든 만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은 것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회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다만 업식으로 말미암아 돼지가 접하는 데로 들고, 소가 접하는 데로 들기도 하고 인간의 자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마치 상점에 가면 배는 배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진열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마음으로 짓고, 마음먹었기에 먹은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선한 과보를 받는다 하고, 악한 마음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업식이 사람의 자궁으로 들어가 부모의 정혈을 빌어 몸을 집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 즉 불성과 계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업식은 생전에 돼지짓을 했으면 돼지자궁이 고래등 기와집인줄 알고, 독사짓을 했으면 독사의 뱃속을 또 대궐처럼 느끼게 됩니다. 전자에 사람으로 살다가 독사굴로 들어가니 몸받아 나와서야 비로소 인간으로 살던 습 때문에 그냥 독사지옥을 느끼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로 이 몸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진화하라는 것입니다.

꾸어준 돈 받지 못해 괴로워

문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전생에 진 빚이라 빚 갚는다고 생각하자' 하면서도 미련이 남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우기 상대가 친형제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형숙·서울 구로구 시흥1동〉

답 세간법칙대로라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마음이 편하겠지요. 아니면 본래부터 내 것은 없으니 재물을 나누었다, 무주상 보시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또 질문하신 분처럼 '전생에 진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 편한대로 하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마음 편한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각 돌리려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씀인데 돈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지도 말고, 그냥 방하착(放下着)하세요.

그것도 본성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그 자리에 되놓는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현상들이 건강상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인공에 맡기면 익힐 것은 익히고 모자라는 것은 절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고 관해 보세요. 분명코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빠지는 경험 자주해

문 잠이 들기전에 저는 가끔 제 몸의 에너지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일정한 방향으로 쭉 빨려드는 것같은 상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는 것같아 번번히 끝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권명주·대구시 북구 산격3구〉

답 공부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계라도 그것은 참다운 도가 아닙니다.

옛날 선사들께서는 공부중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예로 들며 '그 또한 마군의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제 몸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현상을 통해 무엇을 새삼스레 알려고 하지도 말고, 공부가 익어가기 못받는 이유를 이리저리 헤아려 본들 사량분별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냥 턱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도 주인공의 몫, 돈을 받는 것도 주인공의 몫이다. 전생의 빚을 갚은 것이라면 그 또한 주인공의 몫이고, 나눔의 삶을 살라함도 주인공의 몫이다. 그러니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으려 해도 잘 놓아지지 않으니 방법을 일러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놓음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놓아지지 않는 것인데 방법을 찾다니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굳게 믿고 턱 맡겨 놓으세요. 사량분별이 붙어서는 안됩니다. 굳게 믿을 때 그런 믿음엔 공덕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무서운 병에 걸려

문 아이 엄마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손자를 맡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병이 났는데 병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선 암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 스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순·경기 수원시 이목동〉

답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치료사도 아니구요. 하지만 그게 다 업식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것을 녹이는 방법은 '바로 일체는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만 업식을 녹이고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강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한편으로 치료할 것은 하면서 말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적멸보궁

月磨銀漢轉成圓
(월마은한전성원)
素面舒光照大千
(소면서광조대천)
蓮開山山空掩影
(연비산산공착영)
孤輪本不落靑天
(고륜본불락청천)
默契菩提大道心
(묵계보리대도심)

통도사

달이 은하수를 맴돌아 둥글고 밝으니
흰 얼굴 잔잔한 빛 대천세계를 비추네
팔을 벌려 산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 하나
달은 본래 푸른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묵묵히 보리 대도심에 계합하네.

해설 통도사의 대웅전은 적멸보궁이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다. 이 적멸보궁은 신라 선덕왕 15년에 초창됐는데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임란 때는 완전히 불타기도 했다. 현재의 건물은 인조 19년(1641)에 우운(友雲)스님이 중건한 것이다. 15간 규모의 이 보궁은 보물 144호로 지정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건물의 외부 4면에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동쪽에는 대웅전, 서쪽에는 대방광전, 남쪽에는 금강계단, 북쪽에는 적멸보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이같이 독특한 건축물의 정면(남쪽)에 걸린 이 다섯구절의 주련은 적멸보궁의 이미지와 매우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과 은하수 그리고 우주의 최대개념인 대천세계의 이미지야말로 적멸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흰 얼굴(달)로 상징되는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의 세계에 대한 설명, 즉 '본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적멸보궁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통도사 대웅전인 적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불법의 광대무변한 세계 표현

화제의 신간
창작예언소설

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와 인류에게 대위기가 발생,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숨어서 침묵하던 도인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현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 인류의 대위기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지극히 합리적인
자아완성의 수행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옛부터 비밀리 전해지던 금단의 비전이
드디어 공개되는데……

김일하 지음/값 6,000원

법보시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금강경(심재열/ 값 2,000원)
2.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 값 2,000원)
3. 우리말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4. 한문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5. 우리말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6. 한문불설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 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 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홍/ 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용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중앙승가대학

사회 문제 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사원 경제 활성화 방안

— 미래 지향적 생산불교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식순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씀 설정스님(종회의장)·송산스님(학장스님)
  세미나사회: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 제1주제: 원시불교의 생산관
  발표자:정인스님(중앙승가대,종회의원) 토론자:박경준(동국대)
- 제2주제: 대승불교의 생산관
  발표자:곽만연(동아대), 토론자:연기영(동국대)
- 제3주제: 한국불교 사원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자: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토론자:지명스님(총무원 기획실장)
- 제4주제: 미래지향적 생산불교의 방향
  발표자:영담스님(본 연구소 소장), 토론자:현근스님(종회의원)
- 지정토론: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

▌날짜: 불기 2539년 4월 26일(수)
▌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조계사 문화교육관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 위원회
중앙승가대학 사회문제연구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경공덕원 개원 및 출판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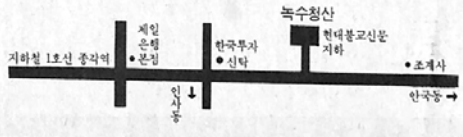
佛法僧 삼보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출가제자 佛恩은 삼가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펴신 지 어언 삼천 여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지 못하고 한량없이 망망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이 부평초 같이 떠돌기에 한마음 일으켜 여기, 사경전문 수행도량인 사경공덕원의 문을 엽니다.

뜻과 원력은 크오나 역량은 그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분심을 발하고 용맹심을 세우되 맹세코 중생제도하기를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임하고자 합니다. 산승이 이제 미약한 정성을 다하여 사경공덕원을 개설하옴은 감히 한 표주박의 물로 산불을 끄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러러 바라옵건대 삼보와 관음의 힘을 빌어 이와 같은 큰 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이번에 출간되는 사경본 「관음경」, 「관음예문」, 「반야심경」과 아울러 양효숙 보살님의 사경수행 발원문 모음집 「솔바람 허허로운 깨달음의 뜨락」의 출판기념법회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삼생에 인연 있는 불자님들과 더불어 그 자량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사경공덕원 원장 한불은 합장

- 일시: 1995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소: 녹수청산(현대불교 지하)
- 전화: (02) 739-3811, (0338) 73-8556
- 팩스: (02) 730-9655

※출판기념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께는 「솔바람 허허로운 깨달음의 뜨락」을 글쓴 이 양효숙님께서 친필 서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경본 「반야심경」도 온가족이 함께 사경할 수 있도록 법공양 드립니다.